

#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과 다이쇼 (大正)시대의 여성운동\*

— 여성문예잡지 『처녀지』(處女地)를 중심으로 —

이 지 형\*\*

---

## 目次

---

서론

- I. 『처녀지』에 대한 비판과 잡지의 시사성(時事性)
  - II. 『처녀지』의 독자층과 수용양태
  - III. 다이쇼시대의 여성잡지 및 여성운동에 있어서의 『처녀지』의 좌표
- 결론
- 

## 서론

여성잡지 붐이 최고조에 달했던 다이쇼 시대 중기 무렵, 한 이색적인 여성잡지가 발간되었다. 1922년(다이쇼 11년)에 창간된 『처녀지』(處女地)가 그것이다. 『처녀지』를 이색적인 잡지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처녀지』는 『부인공론』(婦人公論), 『주부의 친구』(主婦之友), 『부인클럽』(婦人俱樂部)<sup>1)</sup> 등 당시 위세를 떨치던 우수한 여성잡지와는 명확히 차별적인 출판배경 속에서 간행된 잡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여성잡지의 경우에 특정의 출판사에 의해 주재되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 『처녀지』의 주재자는 개인인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이하 도손으로 통일)이었던 것이다. 잡지의 출판자금 또한 1922년에 간행된 도손의 첫 번째 전집인 신초사(新潮社)판 도손전집의 인세였다.

『처녀지』라는 잡지의 이름은 투르게네프의 소설 『처녀지』에서 따 온 것으로 그 명명에는 여성의 세계라고 하는 아직 미개척의 불모지를 <개척>하고자 하는 잡지창간의 포부가 담겨져 있었다. 『처녀지』의 원래의 방침은, 도손은 잡지라는 틀을 제공만 하고 잡지운영의 실제적인 작업은 여성들에게 일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잡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자 편집방침은 물론 기사내용의 선정 및 편집, 경영경리 면까지 전부 도손의 손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로 인해 여성잡지 『처녀지』에 대한 비평은 바로 그대로 도손에 대한 비평으로 이어졌다. 이토 가즈오(伊東一夫)가 지적한 것처럼 『처녀지』의 발간에 대한 세간의 평은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를 위시한 일부의 저널리스트를

---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4년도 교내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 일본근대문학

1) 다이쇼 시대의 여성잡지 붐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구매능력을 지닌 여성층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 제한적으로나마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이 다이쇼 시대에 들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판적이었다.<sup>2)</sup> 특히 여성해방운동을 일본 사회 전체의 정치적 변혁운동의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회운동가들이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처녀지』를 매우 혹평했다. 『처녀지』의 이상은 생명의 각성과 인격, 개성의 자유로운 육성이라고 하는 내면적 자각을 통하여 여성해방을 견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억눌려 온 여성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밖으로 밖으로 분출되고 있었던 다이쇼 중기의 사회조류와는 일견 역행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처녀지』가 「현실을 무시한 단조로운 여성교양운동(現實を無視した平板な女性教養運動)」<sup>3)</sup>으로 비난 받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판적인 시각은 『처녀지』 창간의 동인이 <신생사건>(新生事件)이라는 도손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이다. <신생사건>이란 도손과 그의 질녀 고마코(こま子)의 부도덕한 관계로 인해 빚어진 사건을 말하는데, 즉 여성잡지 『처녀지』의 창간은 <신생사건>의 속죄라는 도손의 개인적 욕망의 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 바로 이것이다.

본 논문은 잡지 『처녀지』의 체제 및 내용 분석과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조류의 고찰을 통하여 다이쇼 시대 여성운동에 있어서의 『처녀지』의 위상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찰의 목적은 『처녀지』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에 가담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도손이나 『처녀지』의 입장에서서 그것에 가해지는 비판을 우호적으로 변호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처녀지』에 비판이 집중된 현상 그 자체의 의미를 도손과 『처녀지』의 관계라는 좁은 시좌에서 찾는 시도를 지양하고 『처녀지』 내부와 비판을 양산한 동시대적 상황의 양 측면에서 검출하여, 결과적으로 『처녀지』라는 문제계의 설정을 통하여 새로이 밝혀지는 영역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I. 『처녀지』에 대한 비판과 잡지의 시사성(時事性)

『처녀지』에 대한 비판은 전방위적인 것이었다. 『처녀지』를 「사카린 요리의 여성잡지」<sup>4)</sup> 라고 조소했던 아마카와 기쿠에(山川菊榮)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계열 운동가들의 비판이 가장 신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이외에도 『처녀지』에 향하는 시선은 냉대 또는 무시 아니면 흥미 분위의 호기심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처녀지』는 처녀들만 모인 집단이라는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기조차 했다. 그러면 『처녀지』는 왜 일본사회 전체로부터 비판받고 냉대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일까? 먼저 잡지의 체제와 내용의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 보자.

『처녀지』는 1922년 4월부터 간행되어 그 다음해 1월의 제10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발행 부수는 매회 2500부에서 3000부 정도였다. 『처녀지』는 동인잡지의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다. 하지

2) 伊東一夫「『處女地』發刊の事情とその意義」(『藤村研究』風雪(5)』教育出版センター、1973年9月)

3) 伊東一夫編『島崎藤村事典』(明治書院、1982年4月)、『處女地』項目、216面

4) 山川菊榮「サッカリン料理の婦人雑誌」(『改造』第4巻第10号、1922年10月)。또한 대표적인 사회주의 문예잡지인 『種蒔く人』도 「불행히도 우리는 『처녀지』로부터 사회제도에 대한 철저한 회의 또는 증오-부정적인 정신 또는 반항적 자세의 말들을 들을 수 없었다.(중략) 『처녀지』의 인물들은 너무나도 부르조아 문화에 물든 여성들로 가득 차 있다」고 『처녀지』를 비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비판은 이토 가즈오가 앞 논문에서 「종교주의나 자본주의를 철저히 부인하는 과학적 사회주의 또는 무정부주의의 입장에서 나온 비판이므로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 가차없는 부정적 비난」으로 서술하고 있듯이 비판자의 사상적 경향성이 지나치게 반영된 비판인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만 중심적으로 잡지를 꾸리면서 기사의 집필도 담당하는 수명의 여성들이 있었다. 그 면면을 보면 훗날 도손의 부인이 되는 가토 시즈코(加藤靜子), 소설가 마사무네 하쿠초의 동생인 쓰지무라 오토미(辻村乙未), 당시 이미 신진작가로서 활동 중이던 와시노 쓰기(鷺野つぎ)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처녀지』에 관련한 여성들은 와시노 쓰기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무명의 여성들이었다.

잡지의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첫째는 평론, 번역, 창작, 수필 등으로 꾸며지는 「기사」부분이다. 그 외의 네 부분은 「방문록」(おとずれ), 「우리들의 수첩」(わたしたちの手帳), 「서가」(書架), 「최근의 소식」(近時の消息)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방문록」은 독자의 생활이나 근황 소개, 「우리들의 수첩」은 독서감상이나 생활기록, 「서가」는 신간소개를 겸한 서평, 「최근의 소식」은 여성계 또는 여성문제의 동향에 관한 뉴스 등을 주로 다루었다. 이 중에서도 「최근의 소식」은 신문의 사회면에 해당하는 란으로 당시의 다양한 사회문제나 여성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특색 있는 편성이었다.

그런데 『처녀지』가 다른 여성잡지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편지> 또는 <수가> 형식의 글을 투고하도록 독자들에게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투고된 글들을 다른 기획기사들과 똑 같은 비중으로 구별 없이 게재한 점이었다.

창간호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을 편지 형식의 글들에 할애했습니다. 편지 형식은 자유롭고 바람직하므로 우선 함께 편지 형식으로 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유로운 형식을 잡지의 기조로 삼을 생각입니다.<sup>5)</sup>

도손이 직접 쓴 창간호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처녀지』가 <편지> 형식을 독자들에게 권유한 것은 여성들의 내면적 각성을 우선시하는 『처녀지』의 이상을 구현하는 데에는 형식에 구애됨 없이 심경을 자유롭게 토로할 수 있는 서간문체가 적합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로 어떠한 기사들이 게재되었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자.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창간호의 첫 번째 기사인 미키 에이코(三木榮子)의 「어느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ある夫人におくる手紙)이다. 이 글은 한 여성이 친구인 다른 여성에게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은 결혼보다도 문학이라는 예술의 길을 걷고 싶었던 한 여성이 시집가 있던 언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꿈을 접고 언니를 대신해 형부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고백적 내용이다. 다른 가족구성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서글픈 처지가 여실히 드러나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편지>라는 이야기형식은 정해진 또는 가상의 상대방을 향해 어떤 내용이든지 털어놓을 수 있는 일종의 <고백>장치이며, 그 고백을 통해 고백한 자는 심적으로 정화되고, 그래서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 <재생>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저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모조리 드러내 보인 뒤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제 앞에 열리게 되리라고 믿고 싶을 따름입니다」<sup>6)</sup>라고 그 심경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백>을 통해 현재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성장>한다고 하는 <고백>의 메커니즘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또한 동시에 <편지>라는 자유로운 표현형식의 글을 통해서 내적 각성에 의한 <여성의 각성>을 지향하는 『처녀지』의 이상과도 부합하는 알기 쉬운 일례이다. 이외에도 예를 들면 창간호의 「귀성한 아이들에게」(歸省した子供達へ), 「대련에 있는 남편에게」(大

5) 島崎藤村「讀者へ」(『處女地』第1号、1922年4月)、3面

6) 三木榮子「ある夫人におくる手紙」(『處女地』第一号、1922年4月)、17面

連にある夫のもとへ), 「어머니께」(母のもとへ), 「친구에게」(友に), 「누이에게 보내는 편지」(妹におくる手紙) 등의 기사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편지> 형식을 빌려 자신의 심경과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의 글들이 잡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창간호 정도는 아닐지라도 잡지가 폐간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편지> 형식의 기사는 여성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시사적으로 접근한 내용을 그다지 담지 않았다. 물론 시사성의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창간호와 제2호에 연이어 게재되었던 이케다 고기쿠(池田こぎく)의 「시대가 요구하는 신여성」(時代の要求する新しい女)와 오다 야스코(織田やす子)의 「내가 문예에 대해서 느껴왔던 것」(私の文芸に就いて感じたこと)(제2호), 「깨달음의 한걸음」(めざめの一步)(제3호) 등이 그 예이다. 글의 내용을 개관하면, 이케다는 「시대가 요구하는 신여성」에서 현모양처만을 목표로 힘을 쏟았던 「구여성」(古い女)에 대해 「신여성」(新しい女)은 「현모(賢母)와 양처(良妻)가 되기 이전에 우선 건실한 「개인」이 될 것을 이상<sup>7)</sup>으로 하는 「존엄한 사명」(尊い使命)을 지닌 여성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신여성」의 4가지 당면문제가 결혼문제, 교육문제, 직업문제, 권리문제라고 이케다는 지적한다. 그 이외에도 이케다는 여성이 가져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인생관」으로서 「보다 우수한 자신을 보존하는 것」「보다 우수한 종족을 보존하는 것」을 거론하는 동시에 여성의 권리신장과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남녀의 「이질동권」(異質同權)을 주장한다.

이러한 그녀의 주장은 동시대의 주요한 언설인 우생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모성론>(母性論) 및 남녀의 성차(性差) 인식에 기초하는 <성역할 분담론>(性役割 分擔論)의 영향이 커 보이며 그녀 나름의 참신한 주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것에 비하면 오다 야스코의 「내가 문예에 대해서 느껴왔던 것」은 동시대의 지배적 언설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을 반추하며 「예술가의 민중화」「문예상의 계급의식」「종교와 예술」「실행과 예술」등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며 주체적으로 고뇌하는 자세가 엿보인다.

한편 이러한 기사 이외에 눈에 띄는 것은 해외의 저명한 여성운동가 및 관련 글의 소개 및 번역과 「최근의 소식」란이다. 엘렌 케이의 소개와 그녀의 저작 『소수와 다수』(少数と多数)의 번역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의 『부인의 복종』(婦人の服従)의 번역이 전자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획기사는 <여성계몽>이라는 『처녀지』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편성된 핵심적인 글인 동시에 잡지의 최소한의 시사성을 보증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또한 「최근의 소식」란은 시사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를 다수 게재하였다. 예를 들면 「산아제한론에 대한 소감」(産兒制限論の所感), 「공창문제에 대한 토의」(公娼問題の討議), 「조선여성의 구제」(朝鮮婦人救濟), 「진정한 아동보호사업은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나서」(眞の兒童保護の事業は婦人に參政權を得せしめてから)등의 표제의 내용이 그것이다.<sup>8)</sup>

하지만 이러한 기사들도 정치나 사회제도에 대한 신랄한 시사적 비평과는 분명 거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여성을 둘러싼 시사적 문제의 현황을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현실인식에 대한 안목을 키우려고 할 뿐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은 강요하는 일 없이 읽는 여성독자들의 자유에 일임할 따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교적 시사성, 사회성이 있었던 이러한 기사들도 잡지 발행의 중간기에 접어들면 기사란 자체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기사의 시사성 자체가 크게 탈색되게

7) 池田こぎく「時代の要求する『新しい女』(1)」(『處女地』第一号、1922年4月)、129面

8) 그 이외에도 「최근의 소식」란에 게재된 여성과 관련된 시사적 기사로는 「상거 부인의 동정」「빈민을 위해 일하는 세 명의 여의사」「빈민아동을 위해서」「중국학생단의 폐창운동」「가난한 임신부를 위해서」「여성의 생활을 간소화하고 싶다」「전국초등학교 여교원의 단결」등이 있다.

된다. 이유는 있다. 잡지에 시사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잡지등록시 당국으로부터 <종합잡지>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녀지』는 <문예잡지>로 허가를 받았고 그 때문에 시사적 기사를 게재한 것이 출판경고를 받는 빌미가 된 것이다.<sup>9)</sup> 이렇게 보면 『처녀지』는 <시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처녀지』에 대한 비판은 잡지가 비교적 시사성을 견지하고 있었던 간행 초기부터 이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즉 <시사성>의 유무가 비판의 본질적인 동인은 아닌 것이다. 역시 문제는 『처녀지』가 지향하는 운동방향성인 여성의 내면적 각성과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의 <계몽주의>에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여성을 여전히 일방적인 교화(教化)와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는 도손과 『처녀지』의 입장은 다이쇼 중기의 1922년의 시점에서 보면 분명히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시대는 <편지>를 통한 내면적 각성을 외치는 도손의 인식보다도 앞질러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 II. 『처녀지』의 독자층과 수용양태

하지만 『처녀지』는 그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일정의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독자층과 수용양태에 대하여 알아보자. 『처녀지』제7호에는 매우 이색적인 기사가 실려 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제가 학생이던 시절, 새로 부임하신 여교사 A 선생님은 아리따운 외모와 부드러운 언행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내내 짓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중략) 저는 마침내 졸업하게 되어 기차로 3시간 떨어진 곳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랑은 공간을 초월하여 박봉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서로 오고 가며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2년 정도 건넌 끝에 이윽고 둘의 바람이 이루어져 같은 곳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략) 우리들의 관계는 부자연스러우며 신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부정확한 관계이다. (중략) 이 사랑, 이 사랑을 왜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죽음일지라도 진정 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저는 죽음도 마다 앓을 이 마음을 왜 억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만약 저에게서 선생님을 빼앗는다면 저는 설사 그것이 신일지라도 증오할 것입니다. (중략)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찌 하면 이 마음을 구제할 수 있을지를.<sup>10)</sup>

9) 당시의 『新聞紙法』에 의거하여 잡지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명목의 등록비를 내야만 했다. 그런데 시사적인 글을 게재할 수 있는 <종합잡지>는 그렇지 않은 <문예잡지>에 비해 잡지등록비가 상당히 비쌌다고 한다. 그리고 일단 <문예잡지>로 등록된 『처녀지』와 같은 잡지가 시사적인 기사를 계속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잡지의 <성격>을 <문예잡지>에서 <종합잡지>로 바꾸어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액의 등록비를 당국에 지불해야만 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에다 여차피 『처녀지』는 제10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할 예정이었으므로 <종합잡지>로 잡지성격을 바꾸는 쪽이 아니라 그나마 게재하던 일정 정도의 시사적인 기사마저도 신지 않는 쪽으로 편집방침을 정했던 것이다. 伊東一夫(1973)「『處女地』發刊の事情とその意義」『藤村研究』風雪(5)』教育出版センター、21~37面과 瀨沼茂樹『評伝島崎藤村』(實業之日本社、1959年7月)、261~262面 등에 저간의 사정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10) 「覆面の夫人より」(『處女地』第七号、1922年10月)、126~133面

「복면의 부인으로부터」라는 제목의 이 글은 『처녀지』로 투고된 어느 익명의 여성의 수기를 기사 형식으로 게재한 것이다. 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편지를 보낸 익명의 부인은 다름 아닌 <동성애>의 문제로 고뇌하고 있다. 게다가 상대는 한 때 그녀의 교사였던 여성이다. 인용문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글 전체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학생과 교사의 관계로 만난 글쓴이와 「A선생」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글쓴이의 졸업 이후에도 교사와 학생의 사이를 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두 여성의 중간에 「C선생」이라는 남성이 등장하여 결국 「A선생」과 「C선생」은 결혼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글쓴이는 여전히 시집간 「A선생」을 잊지 못하고 고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접하고 우선 놀라게 되는 것은 <동성애>의 내용 그 자체이다. 물론 당시에도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 동성애와 관련된 스캔들 및 동성애를 다룬 소설 등이 없지는 않았다.<sup>11)</sup> 그래도 동성애가 부정할 수 없는 사회의 주요한 문화 코드의 하나인 오늘날과 달리 1920년대 초반의 당시에 있어 동성애는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한 소재였다. 하지만 <동성애>의 내용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다른 곳도 아닌 『처녀지』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이다. 왜냐 하면 앞서 제 1장에서 논술한 대로 『처녀지』는 여성의 내면적 해방에 기초한 <인격주의>와 <도덕주의>를 표방하는 잡지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동성애>의 내용은 일반적 정서로 볼 때 이러한 잡지의 성격과는 상반되는 파격적 내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sup>12)</sup>

『처녀지』의 계몽주의적, 도덕주의적 컬러를 고려하면 이러한 글이 게재된 것 자체가 의외이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글에 대한 도손의 반응이다.

만일 어떤 미지의 여성이 우리들 앞에 몸을 내던지며 고뇌에 가득 찬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한다면 어찌 할 것인가? 여기에 전혀 생면부지의 부인으로부터 온 편지가 있다. 우리들은 우선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자. 이러한 그녀의 고민을 깨우쳐줄 수 있는 보다 높은 성적 도덕은 없는지를 다 함께 생각해 보자. 이 편지는 달리 호소할 곳 없는 부인이 쓴 편지로 나는 아직 그녀에게 답장도 못 하고 있다.

도손은 고민을 토로하는 여성의 투고문의 앞머리에서 「나는 아직 그녀에게 답장도 못 하고 있다」며 「이러한 그녀의 고민을 깨우쳐줄 수 있는 보다 높은 성적 도덕은 없는지를 다 함께 생각해 보자」는 위와 같은 소개의 글을 덧붙이고 있다. 즉 도손은 판단보류의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도손은 좀 더 적극적인 <계몽>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높은 성적 도덕」이라는 구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도손은 동성애 자체에는 어느 정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듯 하다.

감안해야 할 것은 『처녀지』의 주재자이자 실질적인 편집자가 다름 아닌 도손이며, 그러한 이유

11)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문예잡지이자 여성운동잡지였던 『세이토』(靑鞆, 1911~16年) 동인이자 사원의 한 사람인 오다케 고키치(尾竹紅吉)는 동시대의 <동성애>와 관련된 스캔들에서 특히 많이 거론된 여성이었다. 남성적인 외모와 분위기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오다케는 다무라 도시코의 소설 『체념』(あきらめ, 1911~14年)에 서술된 동성애 묘사의 모델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처럼 당시에도 <동성애>와 관련된 언설 등이 없지는 않았다.

12) 오히려 당시의 대표적인 상업적 여성잡지인 『婦人公論』『主婦之友』『婦人俱樂部』등의 독자투고란과 신문의 삼면기사에서는 <동성애>와 관련된 여성의 수기 기사가 심심찮게 발견된다. 이러한 실태는 실제의 동성애 관계의 여부를 떠나 당시의 상업적 여성잡지 및 신문들이 대중들의 관심을 상품 구매력으로 직결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선전포제로서 <동성애> 코드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로 『처녀지』가 뜻있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잡지를 아무리 표방하여도 대외적으로는 『처녀지』가 도손 개인의 잡지로서 강하게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동성애>의 고민을 호소하는 위의 편지는 『처녀지』에 보내진 동시에 시마자키 도손에게 보내진 편지이기도 한 것이다. 즉 편지를 보낸 여성은 도손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고민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 그 여성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동성애> 문제의 본질은 결국 <사랑>과 <성>(性)의 상극, <정신성>과 <육체성>의 모순 그리고 사회적 <금기>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 과연 도손에게 이러한 문제를 내포한 유사한 체험이 있었던 것일까?

여기에서 떠올리게 되는 것은 도손의 삶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신생사건>(新生事件)의 존재이다. <신생사건>이란 육체적인 <성>의 충동으로 시작된 도손과 조카딸 시마자키 고마코(島崎こま子)의 관계가 정신적인 <사랑>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그들의 고투에도 불구하고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사회통념상의 <금기>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 숙부와 조카딸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가족제도>의 장벽 등에 가로막혀 좌절된 사건이다.<sup>13)</sup> 즉 동성애의 문제에 고뇌하고 있는 위의 투고자는 같은 동성애는 아닐지라도 자신의 체험과 유사한 성격의 사랑과 그 좌절을 체험했던 도손에게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도손의 반응은 애매모호한 것이었다. 강한 거부감의 표출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입장은 <신생사건>의 후유증으로부터 탈피하고자 삶 문학의 양면에서 정신적이고 내향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던 당시의 도손으로서는 사회통념으로부터 일탈된 <동성애>문제에 여러모로 이해를 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이유에서 기인한다. 그렇지만 그 여성의 내적인 진솔한 고백은 바로 『처녀지』가 여성들에게 권하는 자세와 일치하는 것인 까닭에 도손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주저한 채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도손은 <동성애> 내용 그 자체에는 찬성할 수 없지만 금기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고백>하는 그녀의 자세에서 『처녀지』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계재에 부적절한 내용이라 판단했다면 편집단계에서 누락시킬 수 있었음에도 「다 함께 생각해 보자」는 소개말을 덧붙여 글을 비중 있게 실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그런데 위의 글이 계재된 다음 호의 『처녀지』에서는 「나처럼 남편과 자식이 있는 부인의 감정으로서는,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여겨집니다」<sup>14)</sup>라고 투고자의 고뇌가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다른 여성 독자의 비난 섞인 반응이 소개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동성애>의 고뇌를 안고 있

13) <신생사건>은 좁게는 도손과 고마코의 근친상간 관계를 의미한다. 둘의 관계가 <신생사건>으로 명명된 것은 둘의 관계를 공표한 도손의 고백적 소설 『신생』(1918~19년) 때문이다. 그래서 <신생사건>의 보다 정확한 정의는 도손과 고마코의 근친상간 관계와 그 비밀을 도손 자신이 소설 『신생』의 발표를 통해 세상에 공표한 것, 그리고 그것에 의해 파생된 도손 집안 내부의 친족간의 소동 및 사회적인 반항 등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작품의 창작과 발표 그리고 영향이 전부 <신생사건>의 일부인 점에 이 사건의 복잡함이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사건의 성격으로 인해 도손의 실생활과 작품의 관계는 한층 더 분리불가능이 되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4) 横瀬多喜「消息(筑波の西より)、その六」(『處女地』第八号、1922年11月)、103面。横瀬의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동성애>의 내용을 다른 곳도 아닌 『處女地』에 투고한 것에 대한 거부감은 「저는 이제까지 감옥에 수감된 여성 죄수들이 동성애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문의 삼면기사에서도 젊은 여성들이 동성애 때문에 동반자살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녀가 서술한 다음에 「이러한 일을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존하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는 여성도 그것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여성도 똑같이 『처녀지』의 독자를 구성하는 일원이라는 점이다. 즉 <성의식>에 있어서는 크나큰 격차를 지닌 상이한 입장이 『처녀지』라는 공통의 장을 매개로 하여 의사를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이질적인 것의 동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것은 바로 『처녀지』라는 잡지 자체의 개방적이고 <느슨한> 입장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즉 『처녀지』는 「현실을 무시한 단조로운 여성교양운동」으로 비판받기도 했지만 여성의 내적 각성을 슬로건으로 여성들의 일상적 삶의 목소리의 귀 기울이는 『처녀지』의 <느슨한> 편집방침은 이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한 곳에 담아낼 수 있는 생산적인 개방성 및 융통성으로서 기능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처녀지』의 독자층을 살펴보면 이러한 추론은 좀 더 설득력을 얻게 된다. 「방문록」란에 게재된 독자들의 글을 보면 그 면면은 가정주부, 여교사, 농가의 여성, 간호원 등 실로 다양하다. 거기에 비하면 『처녀지』를 직접 운영했던 여성들의 경우는 좀 더 균질한 층이다. 여자대학 출신자이거나 여교사 등 일정한 지적 교양을 갖춘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들도 결코 사회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여성들은 아니었다. 즉 『처녀지』를 매개로 교류하는 여성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들이 사상과 운동의 형태로 여성운동을 견인하는 <오피니언 리더> 적인 여성들도 아니지만 동시에 풍속적 유행에 민감히 반응하며 시대의 새로운 조류를 체현하는 소위 <모던걸>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처녀지』의 여성들은 두 부류의 여성층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층으로, 사회참여에도 유행풍속에도 자각적이기는 하지만 그녀 자신들이 그것을 실천하는 형태로 좇아갈 수 없는 사상적으로는 온건보수, 경제적으로는 중류에 도덕심을 갖춘 부인들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처녀지』는 잡지의 성격 뿐 만 아니라 그 독자층 또한 참으로 느슨했다. 『처녀지』는 어디에도 확실히 소속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다수를 점하는 중간지대의 <느슨한> 여성층을 흡수했던 것이다.

그러나 <느슨한> 층은 동시에 결집력이 약한 층이기도 했다. 잡지의 구매력만 보아도 그것은 명약관화했다.<sup>15)</sup> 『부인공론』 『주부의 친구』 『부인클럽』 등 당시의 대표적인 상업적 여성잡지들은 여성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대중문화나 풍속적인 내용을 주로 담으며 폭발적으로 발행부수를 늘려갔다.<sup>16)</sup> 그에 반해 여성의 포괄적인 정신성의 계발을 목표로 삼으며 특정의 여성층을 타깃으로서 공략할 편집전략조차 없었던 『처녀지』가 1년도 채 안 되어 폐간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처녀지』 단명의 원인으로서는 도손의 건강악화 등이 거론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아닌 운영자금의 고갈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sup>17)</sup>

15) 藤田和美 『『靑鞆』讀者の位相』(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會編 『『靑鞆』を讀む』學藝書林、1998年11月)、468面に 의하면, 당시의 상업 여성잡지의 발행부수는 『主婦之友』(1917년 창간)이 창간시의 1만부에서 1924년에 23만 4천부로, 『婦人公論』(1916년 창간)이 1919년에 7만부, 『婦人世界』(1906년 창간)가 1924년에 17~18만부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것에 비하면 『處女地』의 2500~3000부라고 하는 발행부수는 시기적으로 훨씬 이른 『靑鞆』(1911~16년)의 발행부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시대의 상업 여성잡지와는 비교대상조차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6) 물론 이러한 상업 여성잡지들이 풍속적인 기사만을 다룬 것은 아니었다. 기사는 크게 여성문제와 의 관련된 여성운동가 및 사회지도층 인사의 기사와 그리고 풍속적 기사로 크게 양분되어 있었다. 하지만 독자들의 관심을 끈 내용은 풍속기사로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또는 무명인들의 스캔들성 <연애>기사가 인기를 끌었다. 물론, 간통,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 등 <성>과 <연애>를 소재로한 자극적인 기사들은 상업 여성잡지의 폭발적인 구매력 신장을 견인한 일등공신이었다.

17) 『처녀지』의 발행자금은 『藤村全集』의 인세 즉 도손의 자비였다. 瀬沼茂樹 『評伝 島崎藤村』(實業之日本社、1959年7月)、261面に 의하면 인세로부터 1달에 500엔씩을 잡지 발행에 사용했다고 한다. 그 자금만으로 출판가능한 호수는 제10호가 한계라고 도손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

### Ⅲ. 다이쇼 시대의 여성잡지 및 여성운동에 있어서의 『처녀지』의 좌표

그러면 『처녀지』는 동시대의 여성잡지 및 여성운동에 있어 어떻게 위치매김될 수 있을까? 창간 후 1년도 채 안 되어 폐간된 소규모의 여성잡지 『처녀지』는 아무런 존재의의조차 없었던 것일까?

먼저 당시의 여성잡지의 경우를 보자. 잡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대형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상업 저널리즘 성격의 잡지이며 또 하나는 개인이나 단체가 발행하는 동호지, 기관지 등의 독립적(인디) 잡지이다. 전자는 상품으로서의 잡지이며 여성잡지로서는 『부인공론』, 『주부의 친구』 등이 대표적으로, 대량 발행한다. 반면 후자는 「사회개혁이나 의식개혁을 위한 수단이거나 자기주장, 자기표현을 위한 미디어」<sup>18)</sup>로서 발행부수는 수백이거나 많아도 수천 부 정도이다. 당시로서는 하세가와 시구레(長谷川時雨) 주재의 『여인예술』(女人芸術, 일본노동총동맹 발행의 『노동부인』(勞働婦人) 등이 여기에 속한다.<sup>19)</sup> 이러한 독립적 잡지는 전자에 속하는 기성의 잡지에 대한 비판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이미 폐간된 『세이트』(靑鞆)는 물론 『처녀지』도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처녀지』가 다른 독립적 여성잡지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 독립적 잡지의 큰 특징인 자기주장 및 자기표현의 신랄함을 『처녀지』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대신 『처녀지』는 여성의 자발적인 내적 각성을 견인하는 개방적인 <느슨한> 공간을 표방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방성 및 느슨함 그리고 잡지의 고답(高踏)적 내용은 여타의 독립적 잡지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야말로 『처녀지』만의 <독립성>을 선명히 담보하는 근거이기도 하였다.

그러면 다이쇼 시대 여성운동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처녀지』는 어떤 좌표에 있는가? 이를 살피기 위해서는 동시대의 여성운동에 대해 조금 언급할 필요가 있다. 다이쇼 초기의 여성운동이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운동잡지 『세이트』(靑鞆)에 의해서 견인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이트』의 중심적 주장은 여성의 <자립><각성>에 의한 <여권>(女權)의 제창이었다. 결혼보다도 여성의 <자립>이 우선시되어 자유연애에 의한 진정한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결혼은 무의미하다고 간주되었다. 당연히 여성은 반드시 자식을 출산하여 <어머니>가 될 의무 또한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이트』의 주장이자 잡지의 주재자인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의 주장이었다.<sup>20)</sup> 그러한 의미에서 『세

다. 결과적으로 도손의 예상대로 10호를 마지막으로 잡지가 폐간된 것은 『처녀지』의 판매상황이 미진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손은 원래부터 다른 상업적 여성잡지에 대항하여 판매부수를 늘려야겠다는 의식 자체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1년 정도로 마감된 『처녀지』의 단명이 도손 개인의 일회성적인 충동적 욕구의 산물이라는 『처녀지』에 대한 비판근거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8) 齋藤美奈子『モダンガール論』(マガジンハウス、2001年3月)、147面

19) 그 외에도 婦人參政權獲得期成同盟會의 기관지인 『女性同盟』, 友愛會婦人部 발행의 『友愛婦人』 등 여성문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당시의 독립적 잡지는 상당수에 이르렀다.

20) 라이초는 여성운동의 선언적 글로서 유명한 「世の婦人たちに」(『靑鞆』3卷4号、1913年4月)에서 「한 남자의 부인이 되고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것만이 여성의 천직인가?」라고 결혼과 육아가 여성의 천직으로서 당연시되는 사회풍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獨立するについて兩親に」(『靑鞆』4卷2

이토』의 주장은 그 이전까지 여성에게 부과되던 현모양처주의의 언설과는 분명히 차별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세이토』의 운동노선은 대표자인 라이초의 개인생활의 변화에 호응하여 초기의 주장과는 다른 쪽으로 기울게 된다. 1914년부터 화가인 연하의 남성 오쿠무라 히로시(奥村博)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아이까지 출산한 이후의 라이초의 주장은 그녀의 이전의 주장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다. 라이초의 주장은 이전의 여성의 자립을 강조하던 <여권> 주장에서 국가의 모성 보호 및 지원을 부르짖는 <모권>(母權), <모성주의>(母性主義)의 주장으로 선회하였던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변신에는 결혼 및 출산을 통한 그녀 자신의 <모성> 체험이 크게 투영되었음은 물론이다. 동시에 사상적으로는 저명한 스웨덴의 여류사상가이자 여성운동의 선구자인 엘렌 케이의 영향이 컸다.<sup>21)</sup>

한편 <모권>의 주장과 대치관계를 이루며 여성운동의 또 다른 슬로건으로서 제창된 것이 <경제적 자립>을 통한 <여권>의 확립 주장이다. 여성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 불가결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가정에만 안주하지 말고 사회에 진출하여 직접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었다. 대표적인 주창자는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였다.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라이초를 중심으로 한 <모권> 주장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완전히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여성의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는 기본인식에 있어서는 라이초나 아키코나 같은 입장이었다. 문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구체적 수단이 무엇이나의 차이였다.

이와 같은 히라쓰카 라이초와 요사노 아키코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 것은 <모성보호논쟁>(母性保護論争)을 통해서였다. <모성보호논쟁>은 『세이토』의 폐간(1916년) 이후 동시대의 여성운동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분수령이 된 중요한 논쟁이었다. 1918년에서 이듬해 19년까지 2년에 걸쳐 히라쓰카 라이초와 요사노 아키코 간에 중심으로 진행된 이 논쟁은 여성운동의 우선순위를 <모성>의 강조에 두느냐, 아니면 여성의 <자립>에 두느냐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었다.<sup>22)</sup> 라이초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는 나라를 짊어질 인재를 키워내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국가는 여성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반해 아키코는 그것을 「의뢰주의(依頼主義)」라고 비판하며 여성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사회진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라고 반박하였다.

---

号, 1914年2月)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확인된다. 그런데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이던 이러한 라이초의 인식이 그녀 자신의 출산 경험을 통해 <모성> 주장으로 정도되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는 글은 「『個人』としての生活と『性』としての生活との間の闘争について(野枝さんに)」(『靑鞆』5卷8号, 1915年9月)부터이다.

21) Ellen Karolina Sofia Key(1849~1926) : 스웨덴의 여류사상가, 여성해방론자 『아동의 세기』(1900년), 『연애와 결혼』(1903~06년) 등의 유명한 저서를 통하여 여성해방운동의 이론적 리더 역할을 하였다. 다이쇼 시대 일본의 여성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데는 케이의 영향이 매우 컸다. 시마자키 도순은 『처녀지』를 통해 케이의 저서 『소수와 다수』의 번역을 기획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글 여러 곳에 서도 케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도순은 케이의 사상에 공감하면서도 그의 글 「愛」(『新小説』6月号, 1923年)에서는 「그다지도 사랑과 결혼을 역설하고 아동의 세기를 역설한 엘렌 케이가 그녀 자신은 가정도 가지지 않고 자식을 두지도 않은 것은 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의 아이러니인가」라고 쓰고 있기도 하다. 한편 케이의 사상은 <우생학>과 밀접히 관련되어 지나친 <모성>의 강조와 우등/열등한 <아동>의 구분 등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나치즘에서의 유대인 학살 및 인체실험 등 20세기 초, 중반을 풍미했던 전제주의의 이론적 토대로서 악용되기도 했다는 측면에서 그 폐해가 강하게 지적되기도 한다.

22) 라이초와 아키코 이외에도 <모성보호논쟁>에는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인 야마가와 기쿠에(山川菊榮)와 야마다 와카(山田わか)가 가세하였다. 그 중에서도 야마가와 기쿠에는 모성보호논쟁의 본질이 「육아와 직업의 양립문제」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녀의 이러한 지적은 <육아의 일의 양립>이라는 현대의 주요한 여성문제가 1910~20년대의 다이쇼 중기의 시점에 이미 논의의 초점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모성>이나 <자립>이나 또는 <모권>이나 <여권>이나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는 이 논쟁의 승자는 결과적으로 히라쓰카 라이초였다. 여성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은 실제 미미했지만 이후의 여성운동 및 사회 전반에서 화두로 자리잡은 것은 <모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모권><모성주의>의 주장이 <모권>은 거세된 채 <모성>만이 선별적으로 사회전반에 수용되어 기존의 현모양처주의를 대신하는 <모성주의>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변용됨으로써 이후의 쇼와(昭和) 시대의 일본의 국수주의적 내셔널리즘의 고양에 이용당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여하튼 라이초와 아키코의 주장은 다이쇼 중기의 동시대에 있어서 각각 <모권>과 <여권>의 주장을 의미하였다. 양자의 주장이 여성의 권리신장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모성>의 강조를 후자는 <자립>을 최우선시하며 동시진행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렇다면 『처녀지』가 발간된 1922년의 시점에 일본의 여성운동을 둘러싼 주변상황은 어떠한가? 우선 1922년을 떠들썩하게 한 것은 이른바 <백련사건>(白蓮事件)을 위시한 몇 건의 연애사건이었다.<sup>23)</sup> 영문학자이자 평론가인 구리야가와 학손(廚川白村)의 저서 『근대의 연애관』(近代の戀愛觀)이 발표되어 당시의 젊은층에 열광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1921년의 들뜬 분위기가 1922년에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sup>24)</sup> 또한 히라쓰카 라이초가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 등과 더불어 설립(1920년)한 「신부인협회」(新婦人協會)가 중심이 되어 여성의 정치적 결사(結社) 등을 금지한 「치안경찰법 제5조」(治安警察法第五條)의 개정을 요구한 <부인참정권운동>이 일부 개정을 얻어낸 것도 다름 아닌 1922년이였다. 게다가 그 해는 산아제한론(産兒制限論)의 주창자인 미국의 마가렛 상거 부인이 일본을 방문하여 강연회를 여는 등 <산아제한문제>가 여성문제의 초점으로 주목을 받은 해이기도 하였다.<sup>25)</sup> 이와 같은 사항들은 당시의 여성잡지의 지면을 장식한 주요내용이었다.

이렇게 살펴보면 여성과 관련된 당시의 사회적 제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연애문제>나 <부인참정권> 문제는 자아 해방과 여권 획득이라고 하는 여성의 <자립><여권>의 테마로 수렴되며, <산아제한> 문제는 출산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에 착목한 논의라는 점에서 여성의 <모성>의 문제로 내재화되는 것이다. 즉 『처녀지』가 창간된 동시대의 여성문제의 현황은 여성의 <자립>의 주장과 <모성>의 강조라고 하는 <모성보호논쟁> 이후의 여성운동 조류의 두 가지 큰 틀이 여전히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착종되면서 이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상에서 고찰한 동시대 여성운동의 맥락 속에서 『처녀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과연 『처녀지』는 <자립>과 <모성>이라는 여성운동의 두 가지의 큰 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일까?

23) <백련사건>(白蓮事件)이란 재색을 검비한 백작 딸이자 歌人인 柳原輝子(호가 白蓮)가 친정인 柳原 집안의 몰락을 구하기 위해 광산왕인 재력가 伊藤伝右衛門가 정략결혼한 10년 후 남편에게 절연장을 쓰고 연하의 애인인 宮崎龍介와 사랑에 빠진 사건이다. 그 이외에도 1년 전인 1921년에는 이학박사 石原純과 歌人인 原阿佐緒의 연애사건, 철학자 野村隅畔와 제자 岡村梅子の 동반자살 등 일련의 연애사건들이 빈발하여 여성잡지를 포함한 각종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세상을 떠들썩하던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다.

24) 廚川白村은 『或る女』『惜しみなく愛は奪ふ』의 有島武郎, 『出家とその弟子』『愛と認識との出發』의 倉田百三와 더불어 <다이쇼 시대의 3대 연애론자>로 불리기도 한다. 이상주의적 연애관을 제시한 廚川白村의 연애론은 <연애>를 그 이전까지 개인주의적, 유물주의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였던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近代の戀愛觀』(1921년)에 이어 1922년에 발표된 『續近代の戀愛觀』은 『婦人公論』(1922년 4월~9월)에 반 년간 게재되었다.

25) Margaret Sanger(1883~1966년): 미국의 산아제한 운동가.

즉 남녀간의 현재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원칙-법률상 여성이 남성의 아래에 예속된다고 하는 원칙-은 잘못된 것으로 지금 이것이 인간사회의 진보를 저해하는 주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하는 점, 그러므로 이 원칙을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평등의 원칙으로서 한편으로는 남성에게 어떠한 특권도 허용치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여성의 불평등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sup>26)</sup>

인용한 글은 『처녀지』제2호에 번역 게재된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의 『부인의 복종』의 서두 부분이다.<sup>27)</sup> 앞서 언급한 대로 『부인의 복종』은 엘렌 케이의 『소수와 다수』와 더불어 여성문제를 다룬 시사평론으로서 『처녀지』가 의욕적으로 번역을 시도한 기획기사였다. 글의 내용을 보면 법률, 사회제도 문제 등을 매개로 <남녀평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인참정권, 부부관계 등의 사회적, 가정적 관계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 후 여성의 「복종」 즉 남성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불평등 관계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인의 복종』의 주요 골자이다. 그리고 불평등 관계의 진정한 해소를 위해서는 남성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여성의 정신적 독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밀은 주장한다. 즉 『부인의 복종』은 여성의 <자립>을 통한 남녀평등의 실현이 글의 주제인 것이다.

한편 또 하나의 번역기사인 엘렌 케이의 『소수와 다수』는 여성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사회주의, 자유주의 등 이데올로기 문제를 통해 여성문제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글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왜 『처녀지』는 여성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룬 엘렌 케이의 유명한 저서 『아동의 세기』(兒童の世紀)나 『연애와 결혼』(戀愛と結婚)이 아니라 『소수와 다수』를 번역한 것일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우선 가능한 하나의 해답은 이미 일본에서 번역된 적이 있는 엘렌 케이의 다른 저서와 달리 『부인의 복종』은 『처녀지』가 처음으로 번역하는 글이라는 점이다.<sup>28)</sup> 하지만 이러한 해답도 『아동의 세기』와 『연애와 결혼』이 이미 완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중요성으로 인해 여러 잡지 등에서 그 글이 중복 게재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그다지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것은 글의 내용 자체이다. 케이는 『아동의 세기』에서 <모성>이 국가의 초석이 되는 아동의 양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연애와 결혼』에서는 자유연애에 기초한 진실한 사랑의 결실로서의 결혼이 새로 태어날 2세에 미치는 긍정적 명향 등을 논하며 진실한 사랑과 <모성>을 키워드로 여성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소수와 다수』에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보다는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체제 자체가 문제시된다. 「현대사상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sup>29)</sup> 또는 「현대의 문제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밝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위치한 것들을 다방면의 관찰과 대답하되 엄격한 자세로 표현하고 있다」<sup>30)</sup> 라는 도손의 『소수와 다수』에 대한 이해도 이것을 뒷받침한다. 즉 <모성>이라는 여성의 특수성의 강조보다는 사회구조의 보편적 이해를 통한 여성의 <자립>이라는 글의 메시지가 『처녀지』의 번역기사로서 『부인의 복종』이 채택된 이유였던 것이다.

26) ジョン・スチュアート・ミル「婦人の服従」星野耀子譯(『處女地』第2号)、20面

27) John Stuart Mill(1806~1873년) :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사회사상가 영국의 전통적 경험론을 계승하여 <귀납법>을 완성. 실증적 사회과학 이론에 기초하여 <공리주의>의 사회윤리를 설파. 유명한 저서로는 『자유론』(1859년), 『공리주의론』(1861년) 등이 있다.

28) 일본에서 『아동의 세기』는 1919년에, 『연애와 결혼』은 1920년에 각각 번역되었다.

29) 島崎藤村「讀者へ」(『處女地』第7号、1922年10月)、3面

30) 島崎藤村「讀者へ」(『處女地』第8号、1922年11月)、3面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자립>이나 <모성>이나 라는 동시대의 여성운동을 양분한 두 가지 조류 속에서 『처녀지』는 확연히 <자립>에 가까운 경향의 메시지를 여성들에게 발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립>이라는 보편적 구호보다는 <모성>이라는 특수성의 강조를 통해 여권 신장을 구현하려는 분위기가 현저히 우세해지고 있던 동시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문예잡지 『처녀지』의 이러한 노선은 분명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처녀지』의 이러한 좌표는 잡지 창간 한 달 전에 발표된 도손의 다음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현대의 급무는 단지 차가운 가슴으로 여성의 생활을 해부하는 것도 성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아니다. 여성해방의 첫걸음은 여성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중략) 시인 브라우닝의 글에 『여성다움이란 어머니다움이라는 뜻이다. 모든 사랑은 그곳에서 시작되고 그곳에서 끝난다』라는 구절이 있다. 과연 여성다움이란 어머니다움의 동의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 시인도 여성은 단지 어머니이기만 하면 된다, 아이를 기르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sup>31)</sup>

도손은 「지금 시대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라는 이 글에서 여성문제를 탐구한다는 명목 아래 흥미 본위로 <성>문제를 취급하는 것과 이지적 자세만으로 여성문제에 접근하는 것 둘 모두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당시의 여성잡지 등을 중심으로 여성문제를 성적 스캔들화하는 풍조, 여성운동이 여성 일반으로부터 괴리된 채 일부 운동가의 언설을 중심으로 실천보다는 구호만이 선행하는 현상을 도손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운동은 「여성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것」 즉 여성의 내적 각성을 통한 <자립>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되는 도손의 인식이다.

그러면 여성의 내적 각성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여성다움이란 어머니다움」이라는 시인 브라우닝의 글에 「이 시인도 여성은 단지 어머니이기만 하면 된다, 아이를 기르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도손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 부분은 그 해답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도손은 여성이란 당연히 「어머니」가 되어야만 하는 존재이며 자식의 양육이 여성의 유일무이의 과제라는 사회 전반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도손은 <여성>을 바로 <어머니>와 동일시하는 인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여성을 <그 자체> 또는 <인간>으로 보기 이전에 모성을 지닌 <어머니>로서 간주하는 내재화된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여성을 진정한 자립을 견인하는 내적 각성의 출발이라고 도손은 주장한다.

이러한 도손의 주장이 <자립>과 <모성>이라는 두 가지 큰 틀 속에서도 점차 <모성>의 지나친 강조로 치닫기 시작하는 당시의 여성운동의 조류와 사회 분위기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하는 자세의 반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대의 주된 조류였던 <모성주의>를 상대화하는 이러한 도손과 『처녀지』의 입장은 현실무시의 여성잡지로서 그것이 비판받게 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동시대의 여성운동의 중심적 조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차별적인 좌표 설정이야말로 『처녀지』의 존재이유이기도 했던 것이다.

## 결 론

31) 島崎藤村「今の時代に於ける婦人の地位」(『早稲田文學』1922年3月)、63面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처녀지』의 편집방침은 여성의 내적 각성을 슬로건으로 여성의 일상적 삶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개방적이면서도 <느슨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입장은 동시대의 <모성>적 주장의 과잉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여성의 정신적 <자립>을 우선시하는 『처녀지』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표출되었다. 물론 <자립>과 <모성>의 주장은 여성의 권리신장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견지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즉 양자의 관계는 이분법적 대립관계는 아니었으며 그 차이는 목표를 구현하는 실천방법의 우선순위의 차이였다. 이러한 점은 『처녀지』에서도 확인된다.<sup>32)</sup>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인간」적 측면 바꿔 말하면 <어머니>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여성에 초점을 맞추는 『처녀지』의 노선은 명확한 것이었다. 직간접적으로 『처녀지』에 참여하여 활동했던 여성들 중에 유달리 <주부>이자 <어머니>인 여성들이 다수를 점했던 것도 여성의 자유로운 자기표현의 공간을 여성 스스로가 만들어 나간다는 『처녀지』의 이상과 결혼과 육아에 가리어져 있던 <개인>적 부분을 표출하고 싶은 여성들의 욕망이 합치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녀지』의 노선은 그것이 지니는 많은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문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관적 자세로 일관한 시마자키 도손의 정신성과 삶의 방식의 진솔한 표명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도손 나름의 최대한의 <현실참여>이기도 했다. <방관적 자세>도 그것이 일관성을 견지할 때에 긍정적 또는 적극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도손이 시종일관 견지한 <방관적 자세>는 분명 주목의 대상이다. 『세이토』시기의 <자립><여권>의 주장에서 <모성><모권>의 주장으로 전이한 히라쓰카 라이초를 위시한 다수의 여성운동가들이 1930년대 이후의 국수적 내셔널리즘의 고양 속에서 <모성>을 슬로건으로 어떻게 전시의 국책에 협력했는가를 상기해 본다면<sup>33)</sup> <모성>을 상대화한 도손과 『처녀지』의 입장은 결코 일방적인 폄하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

32) 예를 들면 『처녀지』 제3호의 「최근의 소식」란에서는 관련내용을 「아동에 관한 사항」과 「여성에게 관한 사항」의 둘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즉 여성의 <어머니>적 측면의 관련내용은 전자의 「아동에 관한 사항」(兒童に關する事項)란에, 여성의 <개인>적 측면의 관련내용은 「여성에게 관한 사항」(婦人に關する事項)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녀지』에서도 여성의 <모성>과 <자립>이라는 두 가지 틀은 동시에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33) 일본의 여성운동가들이 지나치게 여성/남성의 성적 구도의 해소에만 집착한 채 그 이외의 부분 즉 일본의 내셔널리즘이나 민족적, 계급적 차별의식 등에 자각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은 일본의 여성운동을 논함에 있어 줄곧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이다. 구체적으로는 태평양전쟁으로 전시체제가 본격화된 1930년대 후반 이후, 平塚らいてう가 천황과 神道を 찬양하는 언설을 쏟아내고 있는 점, 市川房枝가 「國防婦人會」에 가입하여 <모성>을 슬로건으로 전시의 동원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高群逸枝가 <母系制>의 여성사관을 神道 및 國學과 연결시켜 <국가주의적 민족의식>의 고양에 힘쓴 점 등이 일본의 여성운동가들의 대표적인 전시체제 협력 사례이다.(鈴木裕子『翼賛と抵抗—女性史を拓く2—』(未來社、1989年) 19~94면을 참조할 것) 그에 비해 시마자키 도손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강하게 비판하는 일은 없었지만 그가 일본펜클럽 초대회장에 추대된 후 즐기차게 요구되어진 전쟁협력의 <報國>발언에 끝내 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 나름의 중립적 거리두기의 자세가 그가 지식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비판이었던 것이다. (다만 伊東一夫編(1982)『島崎藤村事典』明治書院, 676面に 의하면 1942년 11월에 「日本文學報國會」가 개최한 제1회 동아시아문학자대회에서 천황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만세삼창(聖壽萬歲)의 선창을 추천에 의해 담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도손은 젊은이의 전쟁참여를 독려하는 <報國>언설 등에 대해서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 【參考文獻】

- 池田こぎく(1922)「時代の要求する『新しい女』(1)」『處女地』第一号, 129面
- 伊東一夫編(1982)『島崎藤村事典』明治書院, 216面
- 伊東一夫(1973)「『處女地』發刊の事情とその意義」『藤村研究「風雪(5)」』教育出版センター、21~37面
- 伊東一夫(1999)「藤村と『處女地』—『處女地』の刊行事情とその根本にあるもの—」島崎藤村學會編『論集 島崎藤村』(株)おうふう、295~309面
- 川端俊英(1979)『『處女地』創刊と藤村の女性觀』『同朋大學論叢』第41巻、81~110面
- 齋藤美奈子(2001)『モダンガール論』マガジンハウス, 147面
- 島崎藤村(1922)「今の時代に於ける婦人の地位」『早稲田文學』3月号, 63面
- 島崎藤村(1922)「讀者へ」『處女地』第1号, 3面
- 鈴木裕子(1989)『女性史を拓く1』未來社、49~67面
- 鈴木裕子(1989)『翼賛と抵抗—女性史を拓く2—』未來社、19~94面
- 瀬沼茂樹(1959)『評伝 島崎藤村』實業之日本社、261~262面
- 高橋昌子(1994)『島崎藤村 遠いまなざし』和泉書院、1~19面
- 中村泰子(1968)「島崎藤村の女性觀—『處女地』を中心として—」『東洋大學短期大學論集 國語編』第4巻、51~60面
- 平塚らいてう(1913)「世の婦人たちに」『青鞜』4月号
- 平塚らいてう(1918)「母性保護問題について再び与謝野晶子氏に寄す」『婦人公論』8月号
- 藤田和美(1998)『『青鞜』讀者の位相』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會編『『青鞜』を読む』學藝書林、468面
- 三木榮子(1922)「ある夫人におくる手紙」『處女地』第一号、17面
- 山川菊榮(1922)「サッカリン料理の婦人雑誌」『改造』第4巻第10号、87面
- 横瀬多喜(1922)「消息(筑波の西より)、その六」『處女地』第8号、103面
- 与謝野晶子(1918)「婦人の徹底した獨立」『婦人公論』第3巻第3号
- 与謝野晶子(1918)「平塚さんと私の論争」『太陽』第24巻第7号
- 米田佐代子(1999)「『時代』が生み出した『青鞜』—「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の葛藤」米田佐代子、池田恵美子編『『青鞜』を學ぶ人のために』世界思想社、5~10面

## 要旨

本論文は島崎藤村の主宰した女性文芸雑誌『處女地』が大正時代の女性運動の潮流において位置されるべき座標の内實を考察した研究である。これまで『處女地』に對する評価は「現實を無視

した平板な女性教養運動」という同時代の批判あるいは雑誌そのものを藤村個人の實生活との関連のみに収斂させてしまう傾向という兩者の觀點に壓縮される。だが、雑誌の内容に対する具体的な分析、さらにその内容の意味を同時代の女性運動および〈知〉の枠組みの中で捉え直す作業は皆無に近かった。本論はその余白の部分を満たす作業を試みた。

そして考察の結果、女性の〈自立〉と〈母性〉(あるいは〈女權〉と〈母權〉)という大正時代の女性運動の大きな二つの潮流の中で『處女地』の路線は〈自立〉(〈女權〉)の方に傾斜し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また『處女地』の讀者層は女性運動を上層部から牽引するオピニオンリーダー格の女性でもなければ、流行の先端を身を持って体現するいわゆるモダンガールでもない、その中間地帯に位置する思想的には穩健保守、經濟的には中流の〈緩やかな〉婦人層であった。時代遅れの雑誌、時事性の不足というその限界性にも關わらず、『處女地』は女性の内的覺醒の基づいた眞の〈自立〉という理想を持って、昭和のナショナリズムに向かって徐々に加速しつつあった同時代の〈母性主義〉の流れを相對化するスタンスを堅持したのである。同時に『處女地』のこうした座標はその主宰者である島崎藤村の一貫的な〈傍觀的姿勢〉の肯定的な結果物でもあった。

キーワード : 『處女地』、島崎藤村、大正期、女性運動、女性雑誌、母性、女權、自立

투 고 : 2004. 8. 31  
1차 심사 : 2004. 9. 11  
2차 심사 : 2004. 10. 2

住 所 : (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과동 2가 53-12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일본학 전공  
電 話 : (연구실) 02-710-9644 (휴대폰) 011-9173-1930  
E-mail : leejh87@sookmyung.ac.kr